

더 막히는 대출... 서민·자영업자도 규제 강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새 대출규제 도입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설정...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직장인 김모(45)씨는 오는 26일부터 은행 '대출심사'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아들·딸 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도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늘렸지만 여전히 돈에 쪼들리는 상황인데,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니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릴까 답답하기만 하다.

서민, 자영업자들의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말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 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해 시행하면서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가계 입장에서 빛 내기는 더 어려워지고 대출상환 부담은 더 커지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 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우선,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현재 은행들은 DSR 제도 도입을 앞두고 DSR 한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일단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은행마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정 업종을 관리 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한도에 가까워지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주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능하는 지표다.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신DTI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의 원리금만 부채로

은행들은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정 업종을 관리 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한도에 가까워지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주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능하는 지표다.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신DTI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택담보의 원리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신규 대출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에는 임대업 대출 이자는 물론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RTI가 150% (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RTI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금호타이어 파국-수습 갈림길 산은회장-노조 오늘 만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9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만나기로 했다. 이 회장과 노조간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국이나 수습이나'로 갈림길 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오후 1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노조와 간담회를 갖는다.

채권단은 노조의 '해외매각 철회' 요구에도, '해외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히며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사측, 채권단과 노조가 임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금호타이어 노조 만남을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 파국의 길로 갈지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앞서 지난 16일 더블스타 투자유치 안에 대해 100% 동의로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해외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노

조를 최대한 설득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설명 자리라는 게 산은측 분위기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외 매각이 '최선'이라면라도 정작 직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고용 불안 해소를 확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매각의 향 타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해외 매각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는 바람 끝에 내몰린 금호타이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변답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측은 또 오는 20·22·23일 8시간 부분 파업과 24일 총파업과 범시민대회 등을 계획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 투자유치 안에 대해 100% 동의로 승인하고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이 제출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기로 했다. 투자조건은 주당 5000원에 모두 64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효성, 베트남 기능성 의류시장 공략

패션스타와 MOU... 오늘부터 스포츠웨어 '라인' 론칭

효성이 베트남 기능성 의류시장 공략에 나선다.

효성은 최근 베트남 패션기업인 패션스타와 베트남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은 오는 19일부터 효성의 원사를 적용한 패션스타의 브랜드 라이선스 스포츠웨어 '라인'을 론칭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폴리에스터 섬유 아스킨 등이 라이선스 제품의 기능성 후드

재킷 등에 적용됐다.

라이선스는 베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2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론칭되는 라인 제품은 좁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에슬레저룩(일상복을 겸한 스포츠웨어)' 시장을 공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의 경우 1년 내내 더운 곳이라 움직임이 편하고 땀 배출이 원활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의 뛰어난 기

술력과 라이선스의 브랜드 파워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베트남이 글로벌 패션시장의 생산기지인 만큼 전세계 패션시장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베트남에서 효성의 차별화 원사가 쓰인 라이선스의 스포츠웨어 라인이 론칭된다. <효성 제공>



1만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1만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가 설치된다.

1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광주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연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oT 기반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쿠렌, 대우위니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실증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IoT 이전에 2022년까지 120억원을, 첨단센터(2020년까지)와 홀로봇(2022년까지)에는 각각 433억원, 2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국세청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은 지난 16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광주청국세공무원과 함께 하는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늘어나는 여성공직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리더 자양분 확립, 자기 혁신을 통한 성공적인 국제 공무원으로 성장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은향 광주청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공직자들부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성리더를 육성하는 것은 국제청 조직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광주상의 회장 단독 입후보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18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16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 회장 1명만 접수를 마쳤다.

상의는 오는 20일 일반의원(80명)과 특별의원(10명)이 참석하는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정 회장은 임시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다. 다만, 이의 제기시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로또복권 (제798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2	10 14 22 32 36	4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10,791,911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2,709,843	60
3	5개 숫자일치	1,488,979	2,124
4	4개 숫자일치	50,000	98,988
5	3개 숫자일치	5,000	1,653,851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